



“부모의 심장’과 ‘과학자의 두뇌’ 가진 환경부될 것”

지난 5월 이명박 정부의 여섯 번째 개각 때 관료 출신 환경부 장관이 입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성 과학자인 유영숙 박사가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화학자 출신인 유 장관은 우리나라 1호 국가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KIST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원장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학지식으로 무장한 신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글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 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먼저 말씀해주시죠. 우선, 환경 보전과 녹색 성장의 총괄 부처로서 환경 비전을 실현하는 환경부의 최일선에 동참하게 되어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지만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총괄하는 중책을 담당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를 '부모의 심장'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집단,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는 전문가들의 학습 집단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장관이 되기 전에 KIST에서 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특히 KIST 40년 역사 상 여성으로 처음 부원장을 역임했는데 그때의 경험도 부탁드립니다. 1990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들어와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유해, 독성물질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생체물질의 상호 작용을 화학, 생물학, 물리학, 전산정보학, 수학 등의 이론을 동원하여 통합적이며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 생물학'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연구 부원장이 된 후에는 연구 전략과 연구사업 관리를 비롯하여 인사조직, 국제협력, 성과확산, 국제협력 등 기관 운영의 전 분야에 걸쳐 최고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개별 연구 뿐 아니라 전체 기관이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인 2010년, KIST가 기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발탁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가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제 전공이 원래 화학인데 물리학, 생물학, 전산정보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후 39년간을 화학과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환경부를 책임지려면 기본적으로 과학지식이 필요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나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전정책 강화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 경력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경 문제는, 특히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환경 문제는 과학, 사회, 정치, 문화, 국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만 과학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본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과학자로서 본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과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 문제는 '해결'의 대상입니다. 오염 문제는 오염처리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 협의 통해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요즘은 환경오염이 과거와 달리 저농도, 장기노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질병의 발생에서 건강의 피해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어린이 건강 보호 등 환경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흡수와 이에 따른 세포·조직의 변화 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화학과 분자역학 등을 포함한 분자생물학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저의 전공이 환경 관련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하자마자 철곡의 고엽제 오염지를 방문했습니다. 미군 캠프 캐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기지 내·외부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조사단은 환경부, 과학원 등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측은 옥 곤 부경대 교수가, 미국 측은 버치마이어 대령이 공동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는 양측 전문가가 기지 내부와 외부의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지 내부의 경우 지난 6월 2일부터 고엽제 매립 의심지역인 헬기장, D구역 등에 대해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전기비저항탐사(ER) 방식을 사용하여 매립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또 기지 내 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관정 6개소와 관측정 16개소에 대하여 한·미 양측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립 의심 지역에 대한 자력 탐사와 토양 시료 채취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지 주변 지역은 지난 5월 27일부터 토양, 지하수, 하천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죠. 지하수



▶ 유영숙 장관이 철곡군청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2011. 6. 1.연합)

와 하천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는데 만약 오염이 확인되면 조사 지점의 숫자를 확대해 오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고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엽제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한·미 양측이 규정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FA와 관련 합의서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한·미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앞으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가 공여한 기지에 대해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의 신속한 공동 대응이 앞으로 환경오염 사고나 사건에 대응하는 모범적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가축이 매장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4천799개소의 가축매몰지가 발생하였으며, 긴급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등 정부합동으로 매몰지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장마 전까지 보완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출수 영향이 아니더라도 수질 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는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먹는 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침출수와 악취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매몰처리 활성화 추진과 매몰지 침출수, 악취 발생 및 안정화 기술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 정책을 펴야 할까요? 지난 2010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역사상 가장 더운 10개의 해 중 9개 연도가 200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지구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농업이나 생태계, 보건 등 전 부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은 크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변화될 미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감축정책은 배출 부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국가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배출원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통해 총량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국가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대한 핵심 대책으로서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이 고시되



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의 보급을 위해 충전소 등을 확충하고 구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분이시니 좀 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과학자로 계실 때 현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현 정부는 국격 제고, 산업 진흥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과학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되는 것을 보면서 과학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자 규모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아울러, 과학 분야의 자율성과 순수성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과학기술 인력이 한 곳에 모

여 창조적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된 과학벨트 대상 지역에 연구,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이 충분히 모여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학자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는지요? 후배 과학자, 특히 여성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극복 방법은 찾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 조직을 떠나,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자질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성실함이 될 수도, 정교함이 될 수도, 창의성이 될 수도, 또 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본인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고 즐겁게 대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ST**

유영숙 장관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입사해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생체과학연구부장, 연구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 장관은 KIST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구부원장을 지냈으며, 제3회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대상을 수상했다.